

필리핀 종교평화아카데미를 통한 민다나오 종교평화 활동의 확대

안토니오 레데스마

까가얀 데 오로 대교구 전 대주교, 필리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저는 HWPL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때 필리핀에서 이만희 대표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민다나오에 대한 평화 노력을 확대하고자 이 대표님께 제안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쁘게도 그는 제 제안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2014년 1월 24일, HWPL이 현재 '민다나오 평화협정'으로 불리는 협정 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징적인 협정은 제너럴 산토스 시에서 이루어졌으며,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페르난도 카펠라 전 대주교와 이슬람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스마일 망구다다투 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는 평화 증진에 있어 협력과 대화의 힘을 강조하며, 필리핀에서 HWPL 평화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년 후인 2019년 1분기에 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BARMM)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세워졌습니다. 사실상, 이는 무슬림 무장 단체와 필리핀 군대 사이의 간헐적인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1960년대 이래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 과정의 정점인 방사모로 평화 협정을 구성했습니다.

2017년 초, ISIS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 무장단체가 정부군과 교전해 이슬람 수도로 인정받는 마라위를 장기간 포위했습니다. 소수 집단에 대한 약탈, 인질극, 즉결 처형에 대한 목격자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기독교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가족들이 마라위에서 안전한 땅으로 도보로 도피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마라위와 인근 지역의 국내 실향민은 거의 40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개월 간의 치열한 시가전 속에서 도심은 잿더미가 되었고, 재건축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HWPL은 민다나오의 다양한 공동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ARMM의 지도부조차도 민다나오에서 HWPL의 평화 구축 노력이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합니다. 최근 HWPL 필리핀 종교평화아카데미(필리핀 RPA) 설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청중에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연합사무실이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의 종교 학자 및 다양한 신앙 전통의 실천가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대화 모임은 세계적 연대, 평화 및 화합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종교평화아카데미의 출범을 통해 우리는 종교, 평화, 아카데미라는 세 가지 핵심 단어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또는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또는 신)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공유합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믿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끄는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또는 토착 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적 신념을 막론하고 평화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원래 그의 모든 자녀를 위해 평화와 조화의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의 의미는 함께 배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먼저 대화에 참여하고 다른 전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배움과 나눔을 통해 공통점과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대화의 학교를 의미합니다. 함께 배우고 다른 많은 전통의 좋은 점을 인식하는 학교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저는 HWPL 필리핀 팀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갖고 민다나오 땅에서 필리핀 종교평화아카데미(RPA)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8월 1일,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BARMM)의 아후트 이브라힘(Ahod Ebrahim) 수석장관의 축복과 지원 속에 우리는 코타바토(Cotabato)시에서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 청소년 및 여성 단체, 교육자, 학생 등 약 500여 명의 참가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필리핀의 주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종교평화아카데미(RPA)의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HWPL 필리핀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민다나오뿐만 아니라 필리핀 무슬림 국가위원회의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가가 전국 규모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기독교 쪽에서 이 대화의 장을 다른 주교, 사제, 신학생, 교회 공동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저는 HWPL에서 공식화한 필리핀 RPA 주제에 대한 여러 비디오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2019년 2월(BARMM 창설과 거의 동시에) 아부다비에서 서명된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의 형제애" 공동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랜드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Ahmad Al-Tayyeb)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과 모든 신앙 공동체는 "대화 문화를 길로, 상호 협력을 행동 강령으로, 상호 이해를 방법과 표준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연합사무실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요청과 일치합니다.

필리핀 종교평화아카데미를 통해 민다나오에서 진행 중인 평화 협정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분쟁 피해 지역에 도전과 영감이 되어 우리 인류 사회의 온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차원인 종교 간 평화 문화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